

대학생 대상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 단축판(K-MPQ-SF)의 타당화 및 문화적 적용*

한 나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문화 역량의 하나인 상호문화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van der Zee 등(2013)이 개발한 다문화 성격 척도-단축판(MPQ-SF)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척도(K-MPQ-SF)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한국 대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K-MPQ-SF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원척도(MPQ-SF)와 동일한 요인 구조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K-MPQ-SF의 40문항 및 요인 구조가 변경된 문항을 제외한 39문항의 적합도 지수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요인 부하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모델을 간소화하고 20문항으로 축약했을 때, K-MPQ-SF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어 구인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다문화 성격의 하위 요인 중 유연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제외한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의 세 가지 하위요인만 상호문화 감수성 및 상호문화 태도와의 준거 관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서 상호문화 특질을 측정할 때 K-MPQ-SF의 세 가지 요인(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서구 문화와 구별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성격, 타당화,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

* 이 논문은 제 1 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1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은 역사적으로 반만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한민족(韓民族)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15~64세) 감소와 이주배경인구(귀화자, 이민자 2세, 외국인) 증가 등으로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래인구추계에서 2042년 생산연령인구의 10명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외국인 인구 비율이 2022년 3.2%에서 2042년 5.7%로 증가하여, 2040년 무렵에는 OECD 기준(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 대비 5% 이상)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4.11.). 이러한 변화는 국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대학생이 국내 캠퍼스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을 세워 대학의 다문화 학생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주류문화 구성원인 한국 대학생이 이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이들이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과 관련하여 다문화 수용성이나 국제화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호문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와 상호문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나, 다문화(multiculturalism)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을 가리키며, 상호문화(interculturalism)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Spitzberg & Changnon, 2009)으로 정의하나,

그 구성개념에 무엇을 포함할지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Leung 등(2014)은 300개 이상의 경험적 연구를 개관하여 상호문화 역량의 구성개념을 '상호문화 능력(capabilities)', '상호문화 태도와 세계관(attitudes and worldviews)', '상호문화 특질(traits)'의 큰 틀로 구분하였다. 먼저, '상호문화 능력'은 상호문화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에 중점을 두며,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한 상호문화 지식(Javidan & Teagarden 2011), 문화 지능(cultural intelligence; Earley & Ang 2003) 등이 이에 속한다. '상호문화 태도와 세계관'은 개인이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신의 문화적 세계 밖에서 오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등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평가와 반응을 말하며, 상호문화 태도는 특정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신념과 지각), 편견(감정), 차별(행동) 같은 인지, 감정, 행동적 요소로도 분류된다(Nolen-Hoeksema 등, 2014).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특질'은 상호문화 상황에서 전형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지속적인 개인적 성격 특성(characteristics)을 말한다. 그 예로는 차이에 대한 개방성(Lloyd & Härtel 2010), 유연성(van der Zee & van Oudenhoven 2000) 등이 있다. 특정 외집단에 대한 상호문화 태도와는 달리, 상호문화 특질은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상호문화 특질은 광범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되는 개인의 성향으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특정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Costa & McCrae, 1992). 이렇듯 상호문화 특질은 비교적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문화 지식이나 기술 같은 상호문화 능력과도 구분된다(Leung et al., 2014).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고정관념, 편견, 차별 같은 '상호문화 태도와 세계관', 문화지능 같은 '상호문화 능력'의 구성개념을 포함한 상호문화 역량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떠한 상호문화 특질이 상호문화 교류에 긍정적인 결

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상호문화 특질에 관한 몇몇 국내 연구도 ‘우파 권위주의적 성격(right-wing authoritarianism)’ 같은 일반화된 편견(generalized prejudice)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특성을 주로 다뤘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은 어린 시절 부모 양육으로부터 사회화되곤 한다. 즉, 엄격하고 처벌적인 양육을 받았던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권위에 복종하면서도 약자에게는 공격성을 보이는 성격을 나타내기 쉽다(김혜숙, 2014). 그러나 Pittinsky 등(2011)은 외집단을 향한 긍정/부정적 측면이 서로 가역적이거나 상호 교환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즉, 권위주의적 성격 같은 부정적 특성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가역적으로 열린 마음 같은 긍정적 특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문화 맥락에서 효과적인 적응과 수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편견이나 차별을 높이는 부정적 특성과 별개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성격 특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긍정적 성격 특질이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이끄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 마음 같은 개인의 성향(disposition)이나 특질은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해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공고화되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인다(Costa & McCrae,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공고화되기 시작하는 성인진입기(만 18~25세) 대학생의 상호문화 특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도구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호문화 특질의 통합적 모델은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2000, 2001)의 ‘다문화 성격(multicultural personality)’ 모델이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성격이 국제적 학업 또는 직장 맥락에서의 효과적인 수행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다문화 성격은 이(異)문화 맥락에서 효율적 수행과 적응(예, 직업/학업 적응, 심리적/사회적 안녕감, 다문화/상호문화 관계)을 이끄는 다음의 다

섯 가지 성격 특성을 말한다: (1) 문화적 공감(cultural empathy), (2) 유연성(flexibility), (3) 사회적 주도성(social initiative), (4)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5) 열린 마음(open-mindedness). 구체적으로, 문화적 공감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성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행동을 쉽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주도성은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특성이다. 정서적 안정성은 스트레스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은 문화적 차이에 개방적인 특성을 말한다(van der Zee & van Oudenhoven, 2014). 다문화 성격 모델을 처음 고안할 당시에는 국제 유학생이나 외국인의 이(異)문화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연구를 통해 다문화 성격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사람들의 긍정적 적응(예, van der Zee et al., 2013)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성격 특성이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의 적응을 높이기 때문에(예, Leong, 2007) ‘다문화 성격’이라고 명명한 것이지, 다문화 성격이라고 해서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을 말하진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권위주의 성격의 권위적인 복종이나 공격성이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편견을 높이는 부정적 성격 특성이면서, 문화적 맥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성격 특성이라는 점과 유사하다.

다문화 성격은 더 넓은 일반적 특질(broad traits)인 Big 5 성격을 통제했을 때, Big 5 성격의 영향력을 넘어 주류집단의 문화 관련 준거변인(예, 다문화 활동성, 국제적 지향성)을 추가로 설명하는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보였다(예, Leone et al., 2005). 또한 상호문화 역량에 관한 개관연구에서는 다문화 성격 모델이 다른 상호문화 역량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내적 일관성, 구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문화 간 척도 동등성 같은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Leung

et al., 2014; Matsumoto & Hwang, 2013).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성격 모델은 처음 고안된 유럽뿐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처음 개발된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 (2000, 2001)의 다문화 성격 척도(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MPQ)는 91문항이었으나, 척도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40문항으로 축약된 van der Zee 등(2013)의 다문화 성격 척도-단축판(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Short Form, MPQ-SF)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PQ-SF의 한국판(Korea-MPQ-SF, K-MPQ-SF)을 번안하고 한국 문화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MPQ-SF는 미국 대학(원)생 표본을 대상으로 개발이 이뤄졌으나, 이후 문화 집단(서구 대 비서구 문화집단) 간 측정 불변성을 검증했을 때 다양한 문화의 집단에 타당하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Hofhuis et al., 2020).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한국 대학생의 상호문화 역량을 측정할 때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상호문화 특질을 측정하는 다문화 성격 척도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대학생이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지녔는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이끈다고 밝혀진 도구를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성격 척도 단축판(MPQ-SF; van der Zee et al., 2013)의 한국판 척도(K-MPQ-SF)를 번안한 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상호문화 역량의 준거변인(예, 상호문화 감수성, 외집단 수용성)과 준거관련 타당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국내 상호문

화 특질 연구의 확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참여자 모집 및 설문을 진행하였다(no. 148-15). 이를 위해 성인집입기(만 18~25세)에 해당하는 한국 대학생 400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는 대학생이 온라인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의 보상으로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400명의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20% 이상 응답 누락, 역채점 문항에도 동일한 응답 반복 등)을 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8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녀 성비는 남성 106명 (27.3%), 여성 282명 (72.7%)로, 여성 비율이 70%로 높았던 van der Zee 등(2013)의 미국 대학(원)생 대상 원척도(MPQ-SF) 타당화 연구와도 유사하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2세($SD=1.98$)이고, 1학년 81명(20.9%), 2학년 67명(17.3%), 3학년 104명(26.8%), 4학년 112명(28.9%), 기타 24명(6.1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연령을 만 18세에서 25세로 제한했으나, van der Zee 등(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18세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대학(원)생이 포함되었던 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 중 해외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가 261명(67.3%)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친구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31명(59.5%)으로 가장 많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388)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연령	만 18~19세	83 (21.4%)	해외 거주 경험	없다	261 (67.3%)
	만 20~22세	200 (51.5%)		6개월 미만	62 (16.0%)
	만 23~25세	105 (27.1%)		6개월~1년	25 (6.4%)
사회 경제 수준	최상	5 (1.3%)		1~2년	29 (7.2%)
	상	36 (9.3%)		3년 이상	11 (2.8%)
	중상	114 (29.4%)		없다	231 (59.5%)
	중	123 (31.7%)	외국인 친구의 수	1명	51 (13.1%)
	중하	64 (16.5%)		2명	34 (8.8%)
	하	21 (5.4%)		3명 이상	72 (18.6%)
	최하	3 (0.8%)			

았다. 평균 외국인 친구 수는 .86명($SD=1.18$)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7$), 외국인 친구와의 친밀도(1. *친하지 않다*~5. *매우 친하다*)는 평균 3.30($SD=1.02$)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대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1: *최하*~7: *최상*)은 평균 4.24($SD=1.12$)로 중간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측정도구

다문화 성격

본 연구에서는 van der Zee 등(2013)의 다문화 성격 척도-단축판(MPQ-SF)의 사용 및 변안을 위해 원칙도 개발자인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의 허가를 받은 후, 이중 언어에 능통한 3인이 이중 역번역 과정에 참여하였다. MPQ-SF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다음의 문항이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5점 Likert 척도(1.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5. *완전히 해당된다*)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다. MPQ-SF는 문화적 공감(8문항,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안다.”), 유연성(8문항, “[역]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 사회적 주도성(8문항, “쉽게 관계를 맺는

다.”), 정서적 안정성(8문항, “일이 잘되지 않을 때 침착하다.”), 열린 마음(8문항,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의 다섯 가지 구성개념을 포함한다. 다문화 성격의 각 구성개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van der Zee 등(2013)의 미국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문화적 공감 .81, 유연성 .81, 사회적 주도성 .81, 정서적 안정성 .81, 열린 마음 .72 이었다.

상호문화 감수성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K-MPQ-SF)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Chen과 Starosta(2000)의 상호문화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를 김옥순(2008)이 변안한 버전을 원칙도와 더욱 유사하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ISS는 총 24문항이며,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상호문화 참여(7문항, “나는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다.”), 문화적 차이 존중(6문항, “나는 다른 문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존경한다.”), 상호작용 자신감(5문항, “나는 다른 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데 상당히 자신이 있다.”), 상호작용 향유(3문항, “[역] 나는 다른 문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좌절한

다.”), 상호작용 주의(3문항, “나는 다른 문화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때 관찰력이 뛰어나다.”). ISS는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ISS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 다. 김춘미와 김은만(2016)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5~.72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상호문화 참여 .74, 문화적 차이 존중 .64, 상호작용 자신감 .85, 상호작용 향유 .72, 상호작용 주의 .68, 전체 척도 .89 이었다.

외집단 수용성

K-MPQ-SF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집단 수용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Mather 등(2017)이 강도 점수(intensity score, iScore)로 환산한 버전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Bogardus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외집단에 대한 수용성을 묻는 총 7문항에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이는 각 문항 내용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예, 친한 친구로 수용 vs. 자국민으로 수용). Mather 등(2017)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친구로 수용하는 문항 점수에 가중치 6점을 곱하고, 자국민으로 수용하는 문항에는 가중치 3점을 곱하는 등 다차원 사회적 거리감 강도 점수(iScore)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iScore의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8점에서 140점이며, 높을수록 외집단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외집단으로 ‘북한이탈주민(7문항)’과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7문항)’를 각각 포함하였다(예, “나는 북한이탈주민/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친한 친구로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북한이탈주민 .93,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90이었다.

외집단에 대한 위협

K-MPQ-SF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관리 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 2005)에서 인종/민족에 대한 편견과 비우호성을 의미하는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를 측정한 척도를 황정미 등(2007)이 한국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척도에서 외집단에 대한 위협 4문항만 사용하였다(예,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외국인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의식조사(황정미 등, 2007)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 이었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확인하고,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Mplus 7.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K-MPQ-SF 문항이 원척도(MPQ-SF)와 동일한 요인 구조로 할당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K-MPQ-SF의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문화 특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다른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문화 성격의 준거 변인은 상호문화 역량에 해당하는 ‘상호문화 감수성, 상호문화 태도(외집단 수용성, 외집단에 대한 위협)’로 설정하였다. 추가로, 다문화 성격과 해외 체류 경험, 외국인 친구 수, 외국인 친구와의 친밀도 간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ronbach's α 를 통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먼저,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K-MPQ-SF)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Kline(2011)은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K-MPQ-SF의 각 구성개념을 살펴봤을 때, 왜도의 절대값이 .61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도 1.3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표 6 참고).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K-MPQ-SF 문항이 원척도(MPQ-SF)와 동일한 요인 구조로 할당되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봤을 때,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이 기각되어($\chi^2=5987.81$, $df=780$, $p<.001$), 상관관계행렬이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KMO) 값도 .84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수준인 .80 이상(Kaise, 1974)에 해당하여 요인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여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K-MPQ-SF)가 어떤 요인 구조를 이루는지 살펴볼 때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과 Geomin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활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Kline(2011)의 제안대로 χ^2 검정, 근사적합도 지수인 CFI(the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확인하였다.

EFA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K-MPQ-SF의 5요인 모형의 χ^2 가 유의했으나($\chi^2(590)=1416.133$, $p<.001$), CFI를 제외한 다른 근사 적합

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이었다(CFI=.848, SRMR=.040, RMSEA=.060 [90% CI: .056, .064]). 구체적으로, SRMR은 .05 이하의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는 .08 이하의 괜찮은 적합도(fair fit)였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다만, RMSEA 90% 신뢰구간 하한이 .05를 넘고, CFI가 .848의 안 좋은 적합도(fair fit)를 보였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 CFI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점은 원척도(MPQ-SF)와 유사한데, CFI가 요인과 모수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을수록 CFI가 낮아지기 때문이다(Kenny & McCoach, 2003; Xia & Yang, 2019).

표 2의 EFA 요인부하 추정치를 살펴보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29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다문화 성격 모델과 동일한 요인 구조로 분류되었다. 29번 문항(“일이 잘되지 않을 때 침착하다.”)의 경우만, MPQ-SF 원척도에서 ‘정서적 안정성’ 요인이었으나(van der Zee et al., 2013), 한국 대학생의 K-MPQ-SF는 ‘열린 마음’으로 요인 구조가 이동되었다.

목표회전

앞선 탐색적 요인분석(탐색적 회전) 결과를 근거로, 요인형태계수 행렬에서 작은 값의 요인부하를 0으로 설정하고 측정오차의 상관을 허용하는 목표회전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측정오차 간 상관이 탐색적 요인구조 추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여 요인 간 변별력을 높이고 자료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이순목 등, 2016).

탐색적 요인분석(탐색적 회전)과 목표회전의 구조가 동일하므로 모형 적합도 지수도 동일하였다(표 3 참고). 목표회전의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에서 10번(“계획한 대로 일한다.”)과 11번(“엄격한 계획에 따라 일한다.”)의 측정오차 간 상관의 MI가 128.504, 17번(“리더의 역할을 한다.”)과 22번(“일을 추진하는 역할을 자주 한다.”)의 측정오차 간 상관의 MI가 68.081,

표 2. K-MPQ-SF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부하 추정치

MPQ 요인	문항	5요인 기본 모형					MPQ 요인	문항	목표회전: 수정모형 5				
		f1	f2	f3	f4	f5			f1	f2	f3	f4	f5
문화적 공감	1	.68	.01	-.04	-.16	-.02	문화적 공감	1	.72	.02	-.11	-.12	-.03
	2	.61	-.03	-.09	.03	.11		2	.60	-.06	-.15	.09	.12
	3	.54	.07	.05	-.13	-.01		3	.56	.05	-.02	-.10	.03
	4	.47	-.03	.25	.02	.04		4	.49	-.04	.22	.02	.02
	5	.48	.07	.14	.09	-.03		5	.49	.06	.11	.08	-.02
	6	.46	-.07	.12	-.04	.11		6	.47	-.07	.10	-.03	.08
	7	.51	.01	.12	-.01	-.07		7	.53	-.02	.11	-.01	-.10
	8	.51	-.04	.23	.02	.09		8	.52	-.06	.19	.02	.07
유연성	9	-.08	.63	.06	.05	-.07	유연성	9	-.03	.62	.08	.00	-.04
	10	.04	.72	-.24	-.02	-.12		10	.02	.57	-.20	-.03	.01
	11	.08	.74	-.22	.04	.03		11	.07	.58	-.20	.04	.07
	12	-.02	.71	-.05	-.07	.02		12	.04	.76	-.05	-.09	.05
	13	-.06	.57	.04	-.04	.11		13	.02	.68	.08	-.07	.09
	14	-.10	.41	.07	.13	.07		14	-.03	.49	.12	.09	.03
	15	-.27	.37	.13	-.07	-.00		15	-.21	.44	.19	-.13	-.05
	16	-.08	.33	-.02	.22	-.07		16	-.04	.39	.03	.19	-.11
사회적 주도성	17	.05	-.11	.63	-.01	.21	사회적 주도성	17	.09	-.10	.61	-.04	.15
	18	.07	.10	.60	.10	-.04		18	.11	.09	.62	.01	-.09
	19	.11	.09	.60	.34	-.06		19	.13	.09	.57	.26	-.07
	20	-.02	-.08	.64	-.03	.29		20	.01	-.08	.64	-.08	.28
	21	-.10	.05	.39	-.01	.26		21	-.09	.03	.41	-.05	.23
	22	-.03	-.09	.66	-.05	.25		22	.01	-.08	.64	-.09	.22
	23	.12	.03	.65	.13	.01		23	.13	-.01	.63	.04	.01
	24	-.05	.02	.69	.24	.01		24	-.01	.04	.74	.15	-.06
정서적 안정성	25	-.24	.02	.14	.62	.11	정서적 안정성	25	-.24	.07	.21	.59	.08
	26	.23	-.03	-.23	.47	.08		26	.21	-.00	-.25	.51	.11
	27	.02	.03	.03	.81	-.02		27	.02	.07	.07	.80	-.05
	28	-.19	-.17	-.01	.62	.00		28	-.05	-.16	.01	.63	-.01
	29	-.00	.00	-.15	.19	.36		29	-.02	.02	-.20	.25	.42
	30	.14	.02	.03	.72	-.04		30	.12	.03	.05	.71	-.07
	31	-.03	-.08	-.01	.70	-.01		31	-.03	-.02	.05	.68	-.07
	32	-.09	-.08	-.07	.42	.16		32	-.12	-.08	-.07	.44	.18
열린 마음	33	.04	.12	-.02	.08	.77	열린 마음	33	.06	.11	.04	.13	.61
	34	-.06	.00	-.02	.04	.79		34	-.05	-.00	.03	.09	.63
	35	-.06	.03	.13	.14	.47		35	-.06	.03	.14	.15	.44
	36	.06	.00	-.06	-.12	.47		36	.03	-.03	-.11	.03	.53
	37	.02	-.06	.34	.05	.45		37	.02	-.08	.34	.04	.43
	38	.13	.01	.16	-.06	.41		38	.11	-.03	.10	-.03	.49
	39	.10	-.03	.13	.01	.34		39	.08	-.05	.08	-.08	.42
	40	.08	.15	.13	-.04	.48		40	.08	.13	.11	-.03	.50

표 3. K-MPQ-SF 목표회전의 모형 적합도

	χ^2	df	$\Delta\chi^2$	Δdf	CFI	SRMR	RMSEA [90% CI]	AIC	BIC
목표회전	1416.133***	590	-	-	.848	.040	.060 [.056, .064]	38247.185	39316.656
수정모형1	1300.990***	589	115.143***	1	.869	.039	.056 [.052, .060]	38134.042	39207.474
수정모형2	1232.976***	588	68.014***	1	.882	.038	.053 [.049, .057]	38068.027	39145.421
수정모형3	1185.197***	587	47.779***	1	.890	.038	.051 [.047, .055]	38022.249	39103.603
수정모형4	1155.938***	576	29.259***	1	.895	.037	.050 [.046, .054]	37994.990	39080.305
수정모형5 (최종모형)	1121.293***	575	34.645***	1	.902	.036	.049 [.044, .053]	37962.344	39051.620

*** $p < .001$

33번(“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과 34번(“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다.”)의 측정오차 간 상관의 MI가 49.533, 19번([역]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과 23번(“쉽게 관계를 맺는다.”)의 측정오차 간 상관의 MI가 46.780, 18번([역]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과 19번([역]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의 측정오차 간 상관의 MI가 43.345로 다른 문항의 MI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측정오차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모두 동일 요인 내 문항으로, 내용 간 유사성이 높았다. 이에 각 측정오차 간 상관을 순차적으로 허락한 ‘수정모형 1~5’의 목표회전을 하였다. 수정모형 1은 10, 11번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한 모형, 수정모형 2는 수정모형 1에 17, 22번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더한 모형, 수정모형 3은 수정모형 2에 33, 34번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더한 모형, 수정모형 4는 수정모형 3에 19, 23번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더한 모형, 수정모형 5는 수정모형 4에 18번, 19번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더한 모형을 말한다. χ^2 차이검증에서

측정오차 간 상관을 순차적으로 허용한 복잡한 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다른 근사 적합도 지수 역시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할수록 더욱 적합해졌다. 최종적으로, 다섯 쌍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허용한 모형(수정모형 5)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검증은 유의했으나($\chi^2(585) = 1121.293, p < .001$), CFI를 포함한 근사 적합도 지수가 모두 ‘괜찮은 적합도(fair fit)~좋은 적합도(good fit)’이었다(CFI=.902, SRMR=.036, RMSEA=.049 [90% CI: .044, .053]). 수정모형 5에서 측정오차 간 상관의 표준화된 추정치는 10, 11번 .56 ($p < .000$), 17, 22번 .40 ($p < .000$), 33, 34번 .44 ($p < .000$), 19, 23번 .35 ($p < .000$), 18, 19번 .31 ($p < .000$)이었다.

최종모형(목표회전 수정모형 5)의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는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동일하게, 29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다문화 성격 모델과 동일한 요인구조로 분류되었다. 29번 문항(“일이 잘되지 않을 때 침착하다.”)의 경우, 원척도(MPQ-SF)에서는 ‘정서적 안정성’ 요인으로 분류

되었으나(van der Zee et al., 2013), 한국 대학생의 K-MPQ-SF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요인구조가 변경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대학생 대상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K-MPQ-SF)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4 참고)¹⁾. 원척도(MPQ-SF)와 동일한 K-MPQ-SF 40문항의 모형 적합도 지수에서 χ^2 는 유의했지만($\chi^2(730)=2071.204, p<.001$), CFI를 제외한 근사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이었다(CFI=.754, SRMR=.076, RMSEA=.069 [90% CI: .065, .072]). 즉, SRMR는 .076으로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보였고(Hu & Bentler, 1999), RMSEA도 .069로 괜찮은 적합도(fair fit)를 보였다. 그러나 RMSEA 90% 신뢰구간 하한이 .065로 .05를 넘어 적합도가 좋지 않고, CFI가 .754로 낮은 수준이었다(poor fit). 이는 원척도(MPQ-SF)의 확인적 요인분석 CFI가 .76인 점(van der Zee et al., 2013)과도 유사한데, 성격 모형의 복잡성(Gignac et al., 2007)과 변수가 많은 점(Kenny & McCoach, 2003; Xia & Yang, 2019)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FA에서 요인구조가 변경된 29문항을 제거한 39문항의 K-MPQ-SF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했을 때, CFI가 .761로 여전히 좋지 않은(poor fit) 적합도 이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간소화하기 위해 EFA에서 낮은 요인부하, 높은 수정지수(MI)를 보인 문항, 문항 총점 간 상관분석과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선별하여 각 요인별 4문항씩 총 20개 문항으로 축약한 K-MPQ-SF 20문항의 CFA를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χ^2 는 유의했으나($\chi^2(160)=318.540, p<.001$), CFI가 .9 이상의 괜찮은 적합도(fair fit)로 개선되었고, 다른

전반적인 근사 적합도 지수도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CFI=.935, SRMR=.049, RMSEA=.051 [90% CI: .042, .059]). 특히, RMSEA의 신뢰구간 하한도 .042로 .05보다 작아져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표 5의 K-MPQ-SF 20문항과 40문항 간 하위요인별 상관계수를 확인했을 때, 동일 요인의 상관계수는 모두 .90~.97($p<.001$)로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 축약된 20문항과 기존 40문항 요인 간 유사성이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K-MPQ-SF 20문항 CFA의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는 .47~.85($p<.001$)로 적절한 수준이었다(그림 1 참고). 요인 간 표준화된 공분산 추정치도 Kline(2011)이 제안한 .9보다 훨씬 작아 각 요인이 구별되었다. K-MPQ-SF 20문항 CFA의 요인별 표준화된 상관계수에서 문화적 공감은 사회적 주도성($r=.49, p<.001$), 열린 마음($r=.44,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적 안정성($r=.06, ns$)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연성은 문화적 공감($r=.22, p<.01$), 사회적 주도성($r=.27,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안정성($r=.03, ns$), 열린 마음($r=-.00, ns$)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주도성은 정서적 안정성($r=.22, p<.001$), 열린 마음($r=.57,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안정성과 열린 마음($r=.26, p<.001$) 요인 간 표준화된 상관계수는 유의하였다.

준거 변인과의 상관분석

K-MPQ-SF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2000, 2001)는 다문화 성격을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효율적인 적응(예, 직업 만족, 학업 성공, 긍정적 다문화/상호문화 관계, 심리적 안녕감 등)을 예측하는 성격 특성으로 정의하여, 원척도(MPQ-SF)는 준거지표로 심리적 안녕감(well-being), 정서 지능을 설정하였다(van der Zee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 역량을 측정하는

1) 성별, 해외거주 경험 유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집단 간 측정 동일성(형태, 요인부하량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표 4. K-MPQ-SF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χ^2	df	CFI	SRMR	RMSEA [90% CI]
K-MPQ-SF 40문항	2071.204***	730	.754	.076	.069 [.065, .072]
K-MPQ-SF 39문항	1978.052***	692	.761	.075	.069 [.066, .073]
K-MPQ-SF 20문항	318.540***	160	.935	.049	.051 [.042, .059]

*** $p < .001$

표 5. K-MPQ-SF 40문항, 20문항: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요인	1	2	3	4	5	6	7	8	9	10
40 문항	1. 문화적 공감	-								
	2. 유연성	-.12**	-							
	3. 사회적 주도성	.31***	-.09	-						
	4. 정서적 안정성	-.00	-.01	.27***	-					
	5. 열린 마음	.25***	-.04	.50***	.20***	-				
20 문항	6. 문화적 공감	.90***	-.17**	.36***	.06	.30***	-			
	7. 유연성	-.13**	.97***	-.12*	-.01	-.07	-.18***	-		
	8. 사회적 주도성	.33***	-.15**	.92***	.18***	.52***	.38***	-.18***	-	
	9. 정서적 안정성	-.02	.04	.31***	.93***	.19***	.03	.03	.21***	-
	10. 열린 마음	.24***	.03	.48***	.21***	.92***	.30***	-.01	.47***	.21***

* $p < .05$, ** $p < .01$, *** $p < .001$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호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상호문화 태도(외집단 수용성, 외집단에 대한 위협)’를 K-MPQ-SF의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상호문화 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정서적 측면을 의미한다(Chen, 1997; Chen & Starosta, 2000). 상호문화 감수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상호문화 참여, 문화적 차이존중, 상호작용 자

신감, 상호작용 향유, 상호작용 주의’가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성격이 외집단 접촉 및 다문화/상호문화 교류와 관련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우정(외국인 친구 수, 외국인 친구와의 친밀도), 해외 거주기간과의 관계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다문화 성격과 준거변인들과의 상관계수는 표 6과 같다. K-MPQ-SF의 각 구성개념과 상호문화 감수성 전체 요인 평균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문화적 공감($r = .36$, $p < .001$), 사회적 주도성($r = .45$, $p < .001$), 정서적 안정성($r = .2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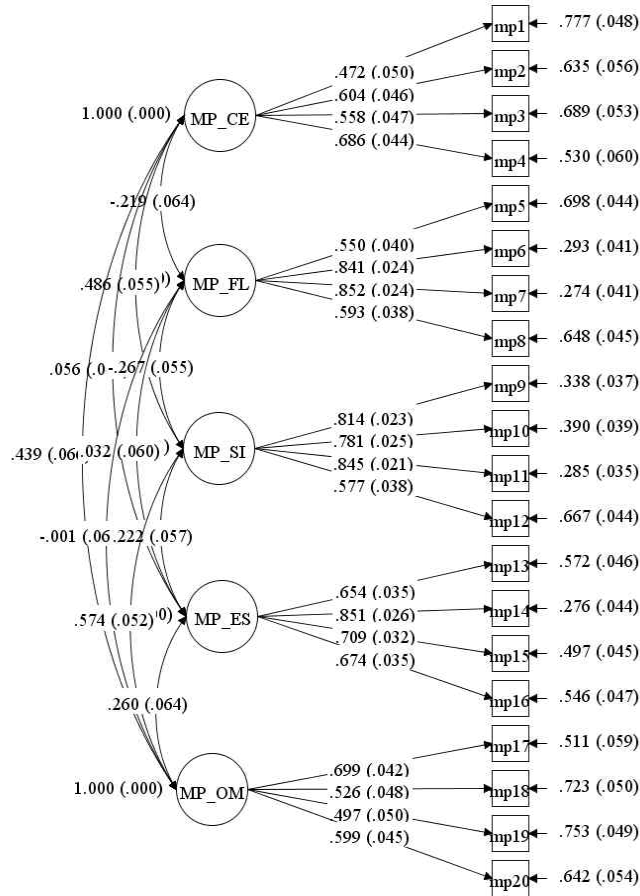


그림 1. K-MPQ-SF 20문항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된 추정치

주. mp_ce: 문화적 공감, mp_fl: 유연성, mp_si: 사회적 주도성, mp_es: 정서적 안정성, mp_om: 열린 마음

열린 마음($r=.49$, $p<.001$)은 상호문화 감수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유연성($r=-.07$, ns)은 상호문화 감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문화 감수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했을 때, 문화적 공감 $.17(p<.01) \sim .39(p<.001)$ 과 열린 마음 $.16(p<.01) \sim .47(p<.001)$ 은 상호문화 감수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주도성은 문화적 차이 존중($r=.07$, ns)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24 \sim .50(p<.001)$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안정성은 상호문화 참여($r=.21$, $p<.001$), 상호작용 자신감($r=.27$, $p<.001$), 상호작용 향유($r=.26$, $p<.001$)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문화적 차이 존중($r=.06$, ns), 상호작용 주의($r=.01$, ns)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연성은 상호문화 주의($r=-.11$, $p<.05$) 하위요인과만 부적 상관을 보였고, 다른 상호문화 감수성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지 않았다.

K-MPQ-SF의 각 구성개념과 상호문화 태도의 하위요인 즉,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용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성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문화적 공감($r_{탈북민}=.15$, $p<.01$; $r_{노동자}=.18$, $p<.001$), 사회적 주도성($r_{탈북민}=.16$, $r_{노동자}=.15$, $p<.01$), 열린 마음($r_{탈북민}=.20$, $r_{노동자}=.19$, $p<.001$)과 정적인 상관

표 6.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38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문화적 공감	-																
2. 유연성	-.18*	-															
3. 사회적 주도성 (MPQ-SF20)	.38**	-.18**	-														
4. 정서적 안정성	.03	.03	.21***	-													
5. 열린 마음	.30***	-.01	.47***	.21***	-												
6. 상호문화 참여	.34***	-.08	.41***	.13**	.44***	-											
7. 문화적 차이 존중	.18***	.00	.07	.06	.16**	.44***	-										
8. 상호작용 자신감	.26***	-.03	.50***	.27***	.47***	.63***	.22***	-									
9. 상호작용 향유	.17**	-.05	.24***	.26***	.26***	.45***	.50***	.51***	-								
10. 상호작용 주의	.39***	-.11*	.39***	.01	.46***	.58***	.24***	.57***	.28***	-							
11. 전체 요인 평균	.36***	-.07	.45***	.21**	.49***	.86***	.63***	.82***	.71***	.69***	-						
12. 탈북민 수용성	.15**	.04	.16**	.08	.20***	.32***	.23***	.13*	.19***	.16**	.28***	-					
13. 동남아노동자 수용성	.18***	.05	.15**	.09	.19***	.36***	.34***	.16**	.26***	.21***	.36***	.66***	-				
14. 외집단에 대한 위협	-.07	-.13*	-.07	-.04	-.09	-.16**	-.33***	-.03	-.22***	-.05	-.20***	-.25***	-.36***	-			
15. 외국인 친구 수	-.04	-.06	.25***	-.04	.17**	.24***	.10*	.29***	.16**	.21***	.28***	.07	.08	.00	-		
16. 외국인 친구 친밀도 ²⁾	.22**	.04	.13	.08	-.02	.27**	.18*	.31***	.11	.11	.28***	-.01	-.09	.23**	-		
17. 해외거주 기간	-.07	-.06	.08	-.02	.11*	.11*	.08	.15**	.13*	.08	.15**	.02	.03	.01	.48***	.10	-
가능한 범위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28-140	28-140	1-5	0-3	1-5
M	3.85	2.85	3.30	2.70	3.36	3.74	3.97	3.12	3.81	3.44	3.64	108.19	107.33	2.24	.86	3.30	.62
(SD)	(.56)	(.79)	(.82)	(.84)	(.66)	(.53)	(.50)	(.78)	(.71)	(.66)	(.46)	(22.54)	(20.32)	(.72)	(1.19)	(1.02)	(1.07)
왜도	-.48	.14	-.41	.15	-.17	.17	-.33	-.51	.14	-.60	-.01	-.67	-.24	.15	.94	-.49	1.72
첨도	.77	-.28	-.37	-.33	.21	.21	.79	.68	-.25	.31	-.02	.62	-.15	-.55	-.80	-.17	1.94

2) 외국인 친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만 응답(n=157)

주. Score로 가중치를 적용한 외집단(탈북민, 동남아 노동자) 수용성만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의 평균점수 사용, *p<.05, **p<.01, ***p<.001

을 보였지만, 유연성($r_{탈북민}=.04$, $r_{노동자}=.05$, ns), 정서적 안정성($r_{탈북민}=.08$, $r_{노동자}=.09$, ns)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외집단에 대한 위협은 다문화 성격 중 유연성($r=-.13$, $p<.05$)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친구 수는 사회적 주도성($r=.23$, $p<.001$), 열린 마음($r=.1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n=157$)만 응답한 외국인 친구와의 친밀도는 문화적 공감($r=.22$, $p<.01$)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K-MPQ-SF의 전체 40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문화적 공감 .79, 유연성 .80, 사회적 주도성 .87, 정서적 안정성 .80, 열린 마음 .80 이었다.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K-MPQ-SF 20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문화적 공감 .67, 유연성 .80, 사회적 주도성 .81, 정서적 안정성 .82, 열린 마음 .66 이었다. K-MPQ-SF 40문항에 비해 축약된 20문항의 문화적 공감과 열린 마음의 내적합치도가 다소 낮아졌으나, 모두 .60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논 의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2000, 2001)의 다문화 성격은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효율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 다문화 성격 척도(MPQ-SF)는 상호문화 역량 중 상호문화 특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소개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K-MPQ-SF)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여 도구의 타당성과 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K-MPQ-SF의 탐색적 요인분석(EFA)에서 29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MPQ-SF와 동일한 요인구조에 할당되었다. 29번 문항(“일이 잘되지 않을 때 침착하다.”)만 ‘정서적 안정성’에서 ‘열린 마음’ 하위요인으로 요인구조가 이동되었다. 문항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 29번 문항은 정서적 안정성에 속하는 몇몇 문항들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예, [역]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히려 열린 마음에 속하는 몇몇 문항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예,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새로운 삶을 쉽게 시작한다.”). 일이나 성취를 중시하는 맥락에 놓인 한국 대학생의 경우, 일에 실패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강한 정서적 안정성을 반영하기보다 일에 실패했더라도 새롭게 일을 다시 시도하거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개방적인 열린 마음을 더욱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K-MPQ-SF 40문항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했을 때, 카이제곱 검정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근사적합도 지수는 CFI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RMSEA의 90% 신뢰구간 하한 값이 .05를 상회한 점은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하며, 특히 CFI는 .754로 매우 낮은 수준(poor fit)을 보였다. 이는 원칙도 MPQ-SF의 CFA 결과(CFI = .76; van der Zee et al., 2013)와 유사한데, 성격 모형의 복잡성(Gignac et al., 2007)과 많은 변인의 수(Kenny & McCoach, 2003; Xia & Yang, 2019)가 낮은 적합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EFA)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구조가 변경된 29번 문항을 제거한 39개 문항 척도에 대해 CFA를 추가적으로 실시했을 때도 CFI가 .761로 여전히 낮은 적합도(poor fit)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인 부하, 수정지수(MI), 문항 총점 간 상관분석과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선별하여 K-MPQ-SF를 20문항으로 축약하였다. 그 결과, χ^2 검정은 여전히 유의했으나, CFI .935로 양호한 적합도(fair fit)를 보였고, RMSEA의 90% 신뢰구

간 하한 값도 .05보다 낮아 모형의 적합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복잡한 성격 구조로 이루어진 모형의 경우, 문항 수 감소를 통해 측정 오차를 줄이고 모형의 복잡성을 단순화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향상됨을 보여준다. K-MPQ-SF 40문항 척도의 CFA에서 나타났던 낮은 적합도는 측정 오차,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 교차 적재(cross-loading)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MPQ-SF 20문항의 χ^2 검정이 유의한 점은 여전히 모형과 자료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축소된 20문항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재검증하며 요인 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Gomes과 Gjokuria(2017)는 요인 간 상관관계와 교차 적재를 허용하는 탐색적 구조 방정식 모델링(ESEM)이 CFA보다 복잡한 성격 모형의 구조를 더 잘 반영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K-MPQ-SF의 요인 구조를 재검토하기 위해 ESEM 분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CFA의 구인 타당도와 관련해서, K-MPQ-SF 20문항의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모두 .4 이상이고, 각 요인부하 추정치가 .9보다 작아 요인이 구별됨을 확인하였고, 본 검사 문항과 구성개념 간의 관계성이 van der Zee 등(2013)의 다문화 성격 이론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K-MPQ-SF의 일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경우가 포함되어 다문화 성격의 각 구성개념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K-MPQ-SF 20문항의 요인별 표준화된 상관관계수에서 '문화적 공감과 정서적 안정성', '유연성과 정서적 안정성/열린 마음' 요인 간 표준화된 상관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연성과 문화적 공감/사회적 주도성 간 관계는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원척도(MPQ-SF)의 요인 간 상관관계수가 .01~.46로, '문화적 공감과 정서적 안정성', '유연성과 정서적 안정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점, 문화적 공감과 유연성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진 않더라도

부적 관련성을 보인 점과 부분적으로 동일하다(van der Zee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성격의 각 구성개념이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와 달리 K-MPQ-SF의 일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경우가 포함된 점은 준거관련 타당도를 논의하면서 함께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의 K-MPQ-SF 20문항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면, 다문화 성격의 다섯 요인 중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의 세 가지 구성개념은 상호문화 감수성, 외집단 수용성(북한이탈주민,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이 상호문화 역량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주류문화 미국 대학생 대상 원척도(MPQ-SF)의 타당화 연구에서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이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관계를 보인 점, 다문화/상호문화 비즈니스 상황에 있는 주류문화 직장인의 문화적 공감과 열린 마음이 상호문화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이 다문화/상호문화 관계 형성을 증가시킨 점(van der Zee & Brinkmann, 2004)과 일치한다. 주류문화 집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안 유학생의 이(異)문화 적응과 관련해서,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역량이라는 잠재변수가 사회문화적 적응을 정적으로 예측한 점(Lee & Ciftci, 2014),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부하직원과 교류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을 정적으로 예측한 점(van Woerkom & de Reuver, 2009)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한국 대학생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고(문화적 공감),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하며(사회적 주도성),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열린 마음) 성격을 보이는 것이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효율성을 증진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문화 성격 중 사회적 주도성과 열린 마음은 외국인 친구의 수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van der Zee와 van Oudenhoven (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주도성과 열린 마음이 다문화 활동성의 증가를 예측한 점과 유사하다. 이는 Williams과 Johnson(2011)의 연구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열린 마음의 수준이 더 높고, 상호문화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intercultural communication apprehension)가 더 적었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문화적 공감은 외국인 친구와의 친밀도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공감 능력이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Hoffman (2008)의 연구와도 일관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열린 마음은 해외 거주기간이 긴 것과 관련되었다. 이는 해외 거주 경험을 통한 다문화/상호문화 경험이 열린 마음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Williams & Johnson, 2011).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유연성은 서구에서 수행된 K-MPQ-SF의 유연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앞선 언급처럼, 한국 대학생의 유연성은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안정성, 열린 마음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는 미국 대학(원)생의 유연성이 문화적 공감과만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을 뿐, 다른 세 구성개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점(van der Zee et al., 2013), 포르투갈 대학생의 유연성이 다문화 성격의 다른 구성개념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점(Korol, 2017) 등 서구문화에서 수행된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또한 준거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다문화 성격의 하위요인 중 유연성만 외집단에 대한 위협과 유의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유연성이 높은 한국 대학생은 외집단 구성원이 내집단 구성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예, “범죄율이 올라간다.”,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식의 위협 평가를 덜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한국 대학생의 유연성은 상호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주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유연성이 높을수록 상호문화적인 상호작용에 덜 주의를 기울인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서구문화권 연구에서 주류문화 집단의 유연성이 국제적 지향성(van der Zee & van Oudenhoven, 2000), 종교적 다양성(Gawali & Khattar, 2016), 민족적 관용(Korol, 2017)을 정적으로 예측한 점(Gawali & Khattar, 2016), 우파 권위주의적 성격을 부적으로 예측한 점(Nesdale et al., 2012)과 상반된다.

그러나 몇몇 아시안 유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Long 등(2009)의 중국인 유학생 연구에서 MPQ-SF의 유연성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유의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유연성은 이(異)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정적으로, 외국인 친구,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다문화 성격 척도의 유연성은 ‘규칙과 계획이 엄격하지 않은 것, 규칙적인 일상(routine)과 친숙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낮은 것’을 측정하는데, 본 연구를 포함한 아시안 대상 연구에서 유연성에 대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점은 아시아 문화권과 서구문화권의 유연성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개인주의의 서구문화권은 대부분 다양성과 새로움, 다른 규준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문화에 해당하나, 집단주의의 아시아 문화권은 집단구성원 간 일치성/획일성, 관습성, 규칙성을 중시하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낮은 문화에 속한다. Kim과 Omizo(2005)의 아시안계 미국인 대학생 연구에서 유럽계 미국인 가치(예, 미혼모 자녀양육 등 가족 특성의 다양성 수용, 자율성, 성적 자유)는 인지적 유연성을 정적으로 예측했지만, 아시아 가치(예, 집단주의, 규준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조절, 효도)가 인지적 유연성을 부적으로 예측한 점은 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더욱이 van der Zee와 Atsma 등(2004)의 연구에서, 다양한 인종/민족 문화로 구성된 상호문화

팀 상황에서 MPQ-SF의 유연성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적 다양성 수준에 따라 상이했다. 즉,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연성은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었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유연성이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서구 문화에 비해 문화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집단구성원 간 일치성이나 관습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상황에 따라 행동을 쉽게 전환하는 유연성이 적응적 가치를 덜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외국인 친구가 없다고 보고한 한국 대학생이 59.5%로 절반 이상이었던 점, 한국 대학생의 평균 외국인 친구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았던 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부족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반영한다.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강조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다양성보다 집단구성원 간 일치성을 더욱 강조하기 쉽다. 또한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연성보다 일상의 반복이나 규칙성이 더욱 적응적인 결과를 이끌기 쉽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이 엄격한 규칙, 계획을 추구하는 특성이 학업적 성취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일상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 대학생의 유연성은 상호문화 감수성 중 상호문화 참여, 상호문화 주의 하위요인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상호문화 역량의 준거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유연성이 문화적 공감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고, 다문화 성격의 사회적 주도성, 정서적 안정성, 열린 마음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종합하면,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서구 문화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적응적인 결과를 이끌기 쉽지만,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에서는 엄격한 계획과 규칙, 확실성,

반복된 일상에 따라 성실함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적응적인 결과를 높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Genkova와 Kaune(2018)의 독일인 국외 체류자 대상 연구에서 유연성이 상호문화 역량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점은 동·서양의 이분법적인 문화차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말해준다. 이(異)문화권의 국외 체류 중인 독일인의 열린 마음과 유연성이 이들의 이(異)문화권 적응을 예측하는지 살펴봤을 때, 열린 마음은 성공적인 해외 적응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예, 직업 및 전반적인 적응, 주류집단과의 관계, 삶의 만족, 직장 만족, 직장 수행)를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유연성은 모든 적응 지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독일은 중간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를 보이는 국가지만, 불확실성 회피가 낮은 국가의 사람들에 비해 독일 사람들은 더욱 과업 중심적이고(task oriented), 획일화되고(standardized), 일관적인(consistent) 민족적 특성을 보인다(Hofstede, 2001). 또한 독일인은 다른 민족 사람보다 법이나 규칙 준수에 더욱 철저하고, 절제하며, 근면하고 성실한 특성을 보인다(김건환, 2006). 엄격한 규칙성과 반복적인 일상을 추구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의 유연성이 이(異)문화권에서 적응적인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인 동양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규칙적이고 엄격한 일상이 중요시되는 민족적 특성 및 문화로 인해 유연성의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K-MPQ-SF 20문항으로 측정한 한국 대학생의 정서적 안정성은 다문화 성격 하위요인 중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과 각각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문화적 공감, 유연성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유연성을 제외한다면, 원척도(MPQ-SF)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문화적 공감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이 유의했던 점(van der Zee et al., 2013)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정서적

안정성은 성공적인 상호문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정서적 측면을 일컫는 ‘상호문화 감수성’ 중 ‘문화적 차이존중, 상호작용 주의’의 하위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상호문화 참여, 상호작용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정서적 안정성은 상호문화 태도 중 외집단 수용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정서적 안정성’ 요인은 사회적 역량 및 안녕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영국 대학원생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팀 수행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점(van der Zee, Atsma et al., 2004), 상호문화 비즈니스 맥락에서 회사원의 정서적 안정성이 상호문화 관계 형성을 높인 점(van der Zee & Brinkmann, 2004)은 이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유연성을 제외하고, 정서적 안정성은 K-MPQ-SF의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호문화 역량(상호문화 감수성, 상호문화 태도)이라는 준거변인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유럽의 국제 대학 프로그램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낯선 문화나 새로운 환경을 처음 접하는 첫 학기 동안에만 유의했다는 종단연구를 고려할 때(Hofhuis et al., 2024), 정서적 안정성은 삶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상호문화 특질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상호문화 역량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국외에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상황과 국내에서 다문화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의 차이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상호문화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문화 성격(K-MPQ-SF)의 하위요인 중 유연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제외한 세 가지 하위요인(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만 활용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에 거

주하는 아시안 유학생 대상 연구에서 정서적 안정성과 유연성의 경로계수가 .5 미만이어서 다문화 성격의 잠재변인에서 정서적 안정성, 유연성을 제외한 세 가지 구성개념(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만 활용한 Lee와 Cifci(2014)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의 한계를 보완한 이후에도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성격에 문화적 공감, 사회적 주도성, 열린 마음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 태도나 능력과 구분되는 상호문화 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문화 성격의 개념을 소개하고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부정적 성격 특성에 초점을 둔 국내 연구들과 달리, 상호문화 맥락에서 효과적인 적응과 수행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 성격 특성에 주목한 점은 강조할 만하다. 더욱이 본 연구는 다문화/상호문화 맥락에서 적응 및 효율성을 높인다고 알려진 다문화 성격 모델을 오랜 단일민족의 역사를 지닌 집단주의 동양 문화의 한국 대학생에게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다문화 성격에 관한 국내 연구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요인분석의 표본크기와 관련해서 요인 당 부하하는 문항 수가 3~4개 이상일 경우에는 500명 이상의 표본을 활용해야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하나(MacCallum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388명의 표본만 활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500명 이상의 표본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류집단 한국 대학생의 K-MPQ-SF 준거지표를 원척도(MPQ-SF)와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려웠다. 즉, 원척도 MPQ-SF(예, 심리적 안녕감, 정서 지능)와 달리 본 연구는 상호문화 역량의 준거변인으로 상호문화 감수성, 상호문화 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판 척도(K-MPQ-SF)와 원척도와 의 준거변인이 동일할 때 서로 다른 준거관련 타당도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은 대학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보다 중국인 유학생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음에도, 외집단 수용성에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지 못했다. 외집단의 인종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외집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다문화 성격을 주류문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나(van der Zee et al., 2013), 다문화 성격 척도의 개발 당시 목적이 이(異)문화 적응에 효과적인 성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성격이 주류문화 구성원인 한국 대학생보다는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에게 더욱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생과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간 비교연구를 통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 18~25세)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원척도는 다양한 연령대(18~50세)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에게 한정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K-MPQ-SF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독립된 표본에서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K-MPQ-SF의 타당성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원척도(MPQ-SF)의 유연성 하위문항이 모두 역채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MPQ-SF에서는 ‘엄격한 규칙이나 계획, 규칙적인 일상 추구’에 관한 문항을 역채점하여 유연하다고 보았으나, 직접적으로 ‘얼마나 유연한지’에 대한 응답과 ‘유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한 것이 다른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곱째, 선행연구에서 Big 5 성격을 통제했을 때,

MPQ-SF가 문화 관련 준거변인을 추가로 설명하는 증분 타당도를 보임을 확인했으나(예, Leon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해 K-MPQ-SF의 구성요인이 상호문화 역량에 효과적인 특질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한 나 는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강사이다. 차별, 트라우마, 자살, 부모양육, 가치, 문화적 다양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승연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괴롭힘, 폭력, 자살, 가치, 긍정심리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건환 (2006). 독일인 그들은 누구인가?: 독일인의 특성과 독일정신. 서울: 한국문화사.
- 김옥순 (2008). 한 · 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 193-217.
- 김춘미, 김은만 (2016).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경험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셀프리더십 비교. *다문화사회연구*, 9(1), 5-29.
- 김혜숙 (2014).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심리. 서울: 집문당.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통계청 (2024.04.11.). 2022년 기준 장애인구추계를 반영한 내 · 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

- bid=207&tag=&act=view&list_no=430383&ref_
bid=203,204,205,206,207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n, G. M. (1997, January).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vention of the Pacific and Asian Communication Association, Honolulu, HI.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NEO-FFI)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AR.
- Earley, P. C., & Ang, S. (2003). *Cultural intelligence: Individual interactions across cultures*.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EUMC. (2005).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 Vienna: EUMC.
- European Commission (2008). *The Intercultural City: Towards a Civic Integration*. European Commission Report.
- Gawali, G., & Khattar, T. (2016).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personality on attitude towards religious diversity among youth.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42(1), 114-123.
- Genkova, P., & Kaune, K. (2018). Success as an expatriate: A quest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25(4), 132-135.
- Gignac, G. E., Bates, T. C., & Jang, K. L. (2007). Implications relevant to CFA model misfit, reliabilit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measured by the NEO-FF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051-1062.
- Gomes, C. M. A., & Gjokuria, E. (2017). Comparing the ESEM and CFA approaches to analyze the Big Five factors. *Avaliação Psicológica*, 16(3), 261-267.
- Hoffman, M. L. (2008).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3rd ed., pp. 440-455). The Guilford Press.
- Hofhuis, J., Jongerling, J., & Jansz, J. (2024). Who benefits from the international classroom?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multicultural personality development during one year of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87(4), 1043-1059.
- Hofhuis, J., Jongerling, J., van der Zee, K. I., & Jansz, J. (2020).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hort Form (MPQ-SF) for us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ducation. *Plos one*, 15(12), 1-14.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Sage, Thousand Oaks, CA.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vidan, M., & Teagarden, M. B. (2011).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global mindset*. In *Advances in global leadership* (pp. 13-39).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Kenny, D. A., & McCoach, D. B. (2003).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3), 333-35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rol, L. D. (2017). Is the association between multicultural personality and ethnic tolerance explained by cross-group friendship?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44*(4), 264-282.
- Kim, B. S., & Omizo, M. M. (2005).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general self-efficacy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12-419.
- Lee, J. Y., & Ciftci, A. (2014).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socio-cultural adaptation: Influence of multicultural personality, assertiven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97-105.
- Leong, C. H. (2007). Predictive validity of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ocio-psychological adaptation of Asian undergraduates who took part in a study-abroad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5), 545-559.
- Leone, L., van der Zee, K. I., van Oudenhoven, J. P., Perugini, M., & Ercolani, A. P. (2005). The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and validity of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1449-1462.
- Leung, K., Ang, S., & Tan, M. L. (2014).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1), 489-519.
- Lloyd, S., & Härtel, C. (2010). Intercultural competencies for culturally diverse work team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8), 845-875.
- Long, J. H., Yan, W. H., Yang, H. D., & van Oudenhoven, J. P. (2009). Cross-cultural adaptation of Chinese students in the Netherlands. *US-China Education Review, 69*(9), 1-9.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 Mather, D. M., Jones, S. W., & Moats, S. (2017). Improving upon Bogardus: Creating a more sensitive and dynamic Social Distance Scale. *Survey Practice, 10*(4), 2770.
- Matsumoto, D., & Hwang, H. C. (2013). Assess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review of available tes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6), 849-873.
- Nesdale, D., de Vries Robbe, M., & van Oudenhoven, J. P. (2012). Intercultural effectiveness, authoritarianism, and ethnic prejudi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5), 1173-1191.
- Nolen-Hoeksema, S., Fredrickson, B., Loftus, G. R., & Lutz, C. (2014). *Introduction to psychology* (16th ed.). Cengage Learning.
- Pittinsky, T. L., Rosenthal, S. A., & Montoya, R. M. (2011). Liking is not the opposite of disliking: The functional separabi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minority group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7*(2), 134-143.
- Spitzberg, B. H., & Changnon, G. (2009). *Conceptualiz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D. K. Deardorff (Ed.),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pp. 2-52). Sage Publications.
- van der Zee, K., Atsma, N., & Brodbeck, F. (2004). The influence of social identity and personality on outcomes of cultural diversity in team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3), 283-303.
- van der Zee, K. I., & Brinkmann, U. (2004).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intercultural

- readiness check against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2(3), 285-290.
- van der Zee, K. I., & van Oudenhoven, J. P. (2000).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of multicultural effective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4), 291-309.
- van der Zee, K. I., & van Oudenhoven, J. P. (2001).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and other ratings of multicultural effe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3), 278-288.
- van der Zee, K. I., & van Oudenhoven, J. P. (2014). Personality and multicultural effectiveness. In V. Benet-Martinez & Y. Y. Hong (Eds.), *The Oxford Handbook of Multicultural Identity* (pp. 255-27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er Zee, K., van Oudenhoven, J. P., Ponterotto, J. G., & Fietzer, A. W. (2013).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1), 118-124.
- van Woerkom, M., & de Reuver, R. S. (2009). Predicting excellent management performance in an intercultural context: A study of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personality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perform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0(10), 2013-2029.
- Williams, C. T., & Johnson, L. R. (2011). Why can't we be friend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friendship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1), 41-48.
- Xia, Y., & Yang, Y. (2019). RMSEA, CFI, and TLI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ordered categorical data: The story they tell depends on the estimation methods. *Behavior Research Methods*, 51, 409-428.

1 차원고접수 : 2024. 09. 23.
수정원고접수 : 2024. 12. 23.
최종게재결정 : 2025. 01. 13.

Validation and Cultural App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Short Form (K-MPQ-SF):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Na Han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 Short Form (K-MPQ-SF), developed by van der Zee et al. (2013), to assess its applicability for measuring intercultural traits among Korean populations. 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388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8 to 25, and the data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strumen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MPQ-SF revealed that all items, except for one item, were classified into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the original scale (MPQ-SF). Howev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unsatisfactory model fit for both the K-MPQ-SF with 40 items and the adjusted 39-item version, which excluded the item that had an altered factor structure. After simplifying the model by removing items with low factor loadings and condensing it to 20 items, the K-MPQ-SF showed an overall good fit index and confirmed construct validity. Notably, among the sub-factors of multicultural personality, only the three factors of cultural empathy, social dominance, and open-mindedness secured criterion-related validity in relation to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intercultural attitudes, while flexibility and emotional stability did no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research or assessments focusing on intercultural traits in Korean contexts prioritize the use of these three factors. Furthermore, the study discusses the sociocultural specificity of South Korea compared to Western cultures.

Key words : Multicultural Personality, Validation, Cultural Empathy, Social Initiative, Open-Mindedness

부록. 한국판 다문화 성격 척도 단축판(K-MPQ-SF 20문항)

다음 문항 중 당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대답에 표시하세요. 다음 문항이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됩니까? (1.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5. 완전히 해당된다) [역채점 *표기]

문화적 공감

-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
-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안다.
-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알아차린다.
-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유연성

- *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
- * 계획한 대로 일한다.
- * 엄격한 계획에 따라 일한다.
- * 규칙적인 일상을 추구한다.

사회적 주도성

- 리더의 역할을 한다.
- 주도성을 가진다.
- 일을 추진하는 역할을 자주 한다.
- 쉽게 관계를 맺는다.

정서적 안정성

- * 걱정한다.
- * 불안하다.
- *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 * 스트레스를 받는다.

열린 마음

-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 새로운 삶을 쉽게 시작한다.
- 문화적으로 무엇이 적합한지 알아차린다.
- 흥미의 폭이 넓다.